

에콜로지 소재 케미컬 프리 울

면의 Organic cotton과 마찬가지로 양모에도 인간과 지구에 어울리는 에콜로지 소재 케미컬 프리 울이 나타났다. 애써 양을 방목하여 키워도 그곳에 살고 있는 목초가 화학비료라던가 농약을 사용하여 사육되고 있는 것은 양의 체질에도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서는 울의 품질에도 악영향을 준다. 케미컬 프리 울이라 함은 무농약의 목초를 먹고 사육된 양으로부터 만들어진 울이다. 면의 Organic cotton과 마찬가지로 사람과 지구에 어울리는 에콜로지 소재라고 한다.

실제 뉴질랜드에서는 화학비료라던가 농약 등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윤기농법에 의하여 목초를 재배하여 그곳에 양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방법이 행해지고 있다. 바이오 울 뉴질랜드사의 케미컬 프리 울의 연간 생산량은 현재 아직은 소규모이지만 금후 5~7년에 뉴질랜드 양모생산량(20만톤)의 10~20%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일본에는 아직 수입되고 있지 않으나 알레르기 증상 등을 일으키는 요인이 적다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 케미컬 플이 울 스웨터 등을 점하게 될 것이다.